

VII. 작물환경 지도사업

1. 사업결과 요약

가. 병해충 예찰 방제

(1) 병해충 예찰

- 벼농사에서 고품질쌀 생산시책에 따라 우리도에서는 추청벼, 일품벼와 일본품종이 확대 집단재배 됨에 따라 1~2월의 새해영농설계교육 때부터 농토배양 등 지력증진 및 주요병해충의 방제요령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였음
- 벼병해충 발생 예찰포와 관찰포(93개소)를 설치하여 주기적인 정밀 조사결과를 토대로 농작물 병해충 발생정보를 발표(4~12월) 하면서 주요 병해충 발생시기별로 기동예찰 등을 강화하여 적기방제에 의한 피해 최소화에 노력하였음.

(2) 병해충 발생 및 방제

- 벼물바구미는 전년보다 다소 빠르게 성충피해가 나타났고 전지역에서 발생되었으나 '98년을 정점으로 전체적인 발생량은 계속하여 줄어들다가 2002년 이후 평형을 이루는 경향이며 저온성 해충인 벼잎굴파리는 산간지 등을 중심으로 발생하여 경미한 피해가 나타났으며 벼잎벌레는 양평, 여주 등의 산간지 중심으로 발생이 확인되는 정도였다.
- 잎도열병은 육묘상자 및 본논을 대상으로 지원방제 및 질소시비량 감소 등 사전방제와 6월 5반순까지 맑은 날 지속 등 발생조건이 비교적 불리하였다가 6월 6반순이후 7월중순까지 연속강우 등에 의하여 '05년의 1.7배 정도 발생을 보여 평년과 비슷하였으나 이삭도열병은 8월초순부터 고온 및 맑은 날 지속으로 전년의 33% 정도로 경미한 발생을 보였다.

- 2001년도에 일부지역에 피해를 크게 주었던 줄무늬잎마름병은 피해 증상이 많이 나타나는 시기가 늦어져 예년의 6월하순보다 1개월 정도 늦은 7월하순이었으며 김포, 시흥, 화성 등 서해안 인접지역을 중심으로 추청벼 등 중만생종벼 출수기에도 기형이삭을 볼수 있었다. 이렇게 예년과 다른 발생양상을 보인 것은 7월하순까지 길어진 장마로 벼가 연약했기 때문이라고 판단된다.
- 흑명나방은 중국의 발생량과 장마전선 영향 등에 따라 발생차이가 크게 나타나는데 비래량이 적어 2005년의 24%정도 발생되었으며 수량감소 등의 피해는 거의 없었다.
- 벼멸구는 2005년도에 안성 남부를 중심으로 여주, 이천과 평택의 충남북 경계지역을 중심으로 황숙기 이후 변색 및 좌지필지가 일부 나타났으나 2006년에는 한수북부의 서해안인접지역인 김포, 고양, 과주, 양주지역 등에서 국부적으로 경미한 피해를 보였다.
- 2001년 김포지역과 2004년 화성의 시화호 주변에서 피해를 크게 준 흑다리긴노린재는 시화호 인근지역인 화성, 안산, 시흥, 수원 등을 중심으로 발생되어 방제소홀한 포장에서는 60% 이상의 반점미 피해를 보이는 논도 있었다.
- 소득작물 병해충은 작물별 주산지를 중심으로 주기적 수시예찰을 실시하여 병해충 발생상황을 작목별로 정밀분석하여 발생추세를 판단하고 적기방제토록 지도하였음
- 도원기술지원단 운영과 중점지도기간을 설정 추진하여 멸구류, 노린재류 등 주요병해충에 대한 피해 최소화에 노력을 하였고 8개 시군의 항공방제를 포함해서 벼물바구 68,418ha(2,961백만원), 도열병 77,368ha(3,075백만원), 멸구류·흑명나방·노린재류 39,282ha(1,064백만원) 등을 지원방제 하였음

- 병해충방제 능력배양을 위하여 3월 하순(2일간) 시군 병해충 예찰 담당자 중앙단위 교육에 참석하여 개인별 능력을 향상시켰으며 8월중에는 담당지도사를 대상으로 2회에 걸쳐서 멸구류 예찰 및 방제요령에 대한 현장교육을 실시하였음
- 병해충 적기방제를 위하여 농작물병해충 발생정보를 신속·정확히 농업인과 관련기관에 알려주기 위하여 행정, 지도, 연구, 농협 등 관계관 12명으로 구성된 협의회를 구성하여 중요시기에는 예찰회의를 개최하는 등 11회의 발생정보 발표하였음

(3) 농약안전사용

- 농산물의 안전생산 및 농약중독사고 예방을 위하여 농업인, 소비자, 관계공직자 등 69,018명을 대상으로 농약사용 교육을 실시하고 주요 작물 주산단지를 중심으로 현장지도를 강화하는 한편 리플릿, 팜플릿 포스터, 표어 등 184,659매의 인쇄물을 제작하여 농업인 등에게 배부하여 홍보하고 TV, 지역의 유선방송, 신문, 잡지 등을 통하여 홍보활동을 강화하였음

(4) 병해충종합관리 사업추진

- 병해충종합관리 사업은 벼농사에서 농업인훈련을 병해충 주발생시기인 6~9월 사이 4회에 걸쳐 현지포장에서 실시함으로써 종합관리 능력을 향상시키고 농약사용을 50% 이상 줄여 친환경농산물 생산기술 확산에 기여하였음.

(5) 천적이용 해충방제사업 추진

- 2개시군에 천적증식시설을 운영하여 진디벌을 생산한 후 해충방제 실증을 위하여 토마토, 고추, 오이 등 과채류에 투입하여 천적을 이용한 친환경농산물 생산기술을 보급하였음.
- 천적이용 친환경농산물 생산시범으로 20개소를 선정하여 각종 천적, 미생물제제, 페로몬트랩, 해충포집기 등을 이용하여 안전농산물을 생산하는 천적이용기술을 보급하였음

나. 토양개량 및 시비개선지도

- 친환경농업관리실 운영에서 기본검정 25,124점, 전략작목 11,973점, 쌀소득등직접지불사업 토양검사 7,093점 등 총 44,190점의 토양 등을 분석하여 33,717매의 시비처방서를 발부하고 20,586명에게 시비지도를 하였으며
- 각시군 담당지도사 25명에 대하여 도단위 토양검정요원화 교육과 각시군의 전지도사 473명을 대상으로 시군단위 교육을 실시하여 합리적인 시비기술 실천지도로 고품질 안전농산물 생산에 기여하였음
- 340필지를 대상으로 하여 벼농사 시비실태를 조사한 결과 10a당 질소비료 시비량이 8.6kg(성분량)으로 기준량(9.2kg)보다 약간 적었으며 '05년(9.0kg)보다는 4% 적게 사용하였음
-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사업에서 화학비료 사용량 감축을 위한 토양 검사(엽분석 포함)결과 110,322농가 105,858ha를 대상으로 6,930점을 정밀분석하여 15필지(약 0.2%)가 부적합판정을 받았고 중점관리 대상지역을 중심으로 중점지도를 실시하였음

다. 친환경 시범사업 추진

- 친환경농업분야 시범사업은 정밀농업 시범사업 등 9종 159개 사업으로 적격자를 선정하고 주요시기별 현장지도 등을 통하여 지도한 결과 농약과 비료를 30~50% 정도 줄여 친환경농업기반 조성에 기반이 되도록 추진하였음

2. 사업 총괄표

사 업 명	계 획	실 적	비 고
○ 벼 병해충 예찰포	17개소	17개소	국비
○ 병해충 종합진단실 장비 보강	2개소	2개소	국비
○ 벼 병해충 관찰포	75개소	75개소	국비
○ 농작물 병해충 발생정보 발표	12회	11회	국비
○ 벼 병해충종합관리 시범사업	20개소	20개소	국비
○ 천적 증식시설 운영	2개소	2개소	국비
○ 천적이용 친환경 농산물생산 시범	20개소	20개소	도비
○ 토양정밀검정(친환경농업관리실 운영)	18개 시군	18개 시군	국비
○ 친환경농업관리실(종합검정실) 검정장비 보강	41대	41대	국도비
○ 벼농사 시비실태 조사	340필지	340필지	-
○ 친환경농업종합시범단지	1개소	1개소	국비
○ 토양환경관리시스템 구축	3개소	3개소	도비
○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제 토양검사	6,930점	7,093점	국비